

한경보 회장 산업안전보건법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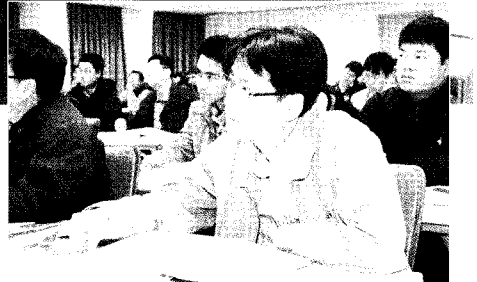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경보 회장.

한경보 회장은 지난 3월23일 협회 강의실에서 금년도부터 우리협회로 재 이관된 안전관리자 대상 교육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였다.

한경보 회장은 이날 산업안전 보건법에 규정된 사항은 물론 각종 국내·외 사고 사례를 열거하며 설명하는 한편, 본 강의에 앞서 안전관리자의 중요성 및 향후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비전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교육 참가자의 궁금증에 대한 해설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동부건설 정석우 안전과장은 교육을 마친 후 당초 교육 참석 시 형식적인 교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았으나 하루간의 교육내용으로는 매우 유용한 교육이었다고 말하고 특히, 재해율과 환산재해율 산정방법에 대한 내용이 기억에 남으며 보호구 점검대상 등은 일선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유용한 내용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개정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이



한경보 회장의 특강을 경청하고 있는 교육 참석자들.

복원된 우리협회는 안전교육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국내 건설안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008년 12월 24일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교육기관 등록증을 교부받은 우리협회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신규 및 보수교육에 6시간, 안전관리자의 경우 신규교육 34시간, 보수교육 24시간의 건설부문 안전관리자 및 책임관리자 보수교육 및 신규교육을 통한 관리자 양성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며,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자료를 DB화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생 및 교육관계업무를 통한 건설안전분야 업역을 증진하고 유관기관 및 건설사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구준 부회장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기념관 개관식 참석



박구준 부회장(사진 좌측)이 지난 4월 30일 오전 10시, 인천 부평구 소재 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기념관 개관식에서 주요 인사들과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박구준 부회장은 지난 4월30일 오전 10시 인천시 부평구 구산동 소재 산업안전보건공단본부에서 노민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노·사·정 및 관련기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기념관」개관식에 참석해 개관기념 테이프 커팅과 축하 인사를 하였다.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기념관」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고, 이 대회에서 채택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서울선언서'의 취지 확산을 위하여 전세계 안전보건대표자들이 채택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서울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사회 각 주체별 안전보건 증진에 대한 이념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난해 121개국 4,550명이 참석해 안전보건에 대한 대륙별

회의, 심포지움, 국제필름 및 멀티미디어 페스티벌, 국제안전보건 전시회 등이 개최된 바 있는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단 본부 1층에 개관한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기념관」은 15개 섹션으로 구분되어 대회 동영상, 역대 개최국 현황,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서 전문, 사진자료 등 기록물과 관련 출판물 및 기념품이 전시되어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의 성과 및 의미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노민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개관사를 통해 “이번 서울선언 기념관 개관은 성공적으로 개최된 제 18회 세계대회를 기념하고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서’의 정신을 국내외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향후 서울선언의 의미를 살려 안전문화 확산 및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협회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제20기 정기총회 전경

우리협회는 지난 2월 19일과 27일 본회 회의실에서 2009년 제1회 정기이사회 및 제21회 정기총회를 각각 개최하고 각종 보고 및 부의안건 의결, 기타 토의사항을 진행 하였다.

한정보 회장의 개회인사 및 성원보고와 전회 이사회 의사 초록 접수, 정영기 감사의 2008년도 결산 감사보고가 있었던

이사회 및 정기총회의 각종보고에서 박구준 부회장은 2008년 주요 업무 및 실적으로 그간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공사금액 1,500억 원 이상 현장의 건설안전기술사 상주관리제도가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안전기사 10년 이상 경력자로 입법 예고되어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우리협회가 안전관리자 교육기관으로 지정 및 등록

1,500억원 이상 현장 건설안전기술사 상주 입법예고

(노동부 공고 제2009-86호)

▷개정이유 : 최근 대형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경험부족과 기술적 검토 미흡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기준의 개선 필요성의 제기됨.

▷개정내용 : 안전관리자 3인이상 선임대상에 해당되는 상시 근로자 900인 이상 또는 총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사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 건설업 사업장은 건설안전기술사 1인을 포함하여 선임하도록 입법예고함.



◦ 정기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진에게 각종 보고를 실시하고 있는 박구준 부회장.

된 건과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2항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작성업무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업무를 총괄하는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 등록의 건을 비롯해 활발한 대외활동 및 행사참여 홈페이지 리뉴얼 개선사업 등을 보고 하였다.

부익안건으로 상정된 신입회원 승인의 건과 2008년도 결산보고 및 2009년도 예산안 승인·정관 일부개정 승인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2009년 주요 사업계획 내용과 신입회원 승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 2009년 주요 사업계획

1. 대형공사 현장의 건설안전기술사 상주관리제도 정착 추진
2. 건설안전기술사 업역 확대 및 협회의 대외적 신인도와 위상 강화
3. 협회의 안전교육위탁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교육의 활성화 추진
4. 건설현장 안전점검 용역 업무 확대
5. 건설재해예방 특별점검
6. 건설공사 중대재해 진단 및 재해예방

7. 건설안전 컨설팅 특화 추진
8. 건설공사 특별진단
9. 공공입찰 수수료강화
10. 사업부서별 독립 책임운영제 체제의 확립 등

● 신입회원 승인 명단

박 종 건(대림산업), 윤 수 한(풍림산업),
최 자 용(대우지동차만매 건설부문)
이상 3명



● 2009 제1회 정기이사회 정경

서울시 건축사회 회장에 김영수 회원 취임



● 서울시 건축사회 회장에 취임한 우리협회 김영수 회원과 축하인사를 하고있는 안무영 건축사업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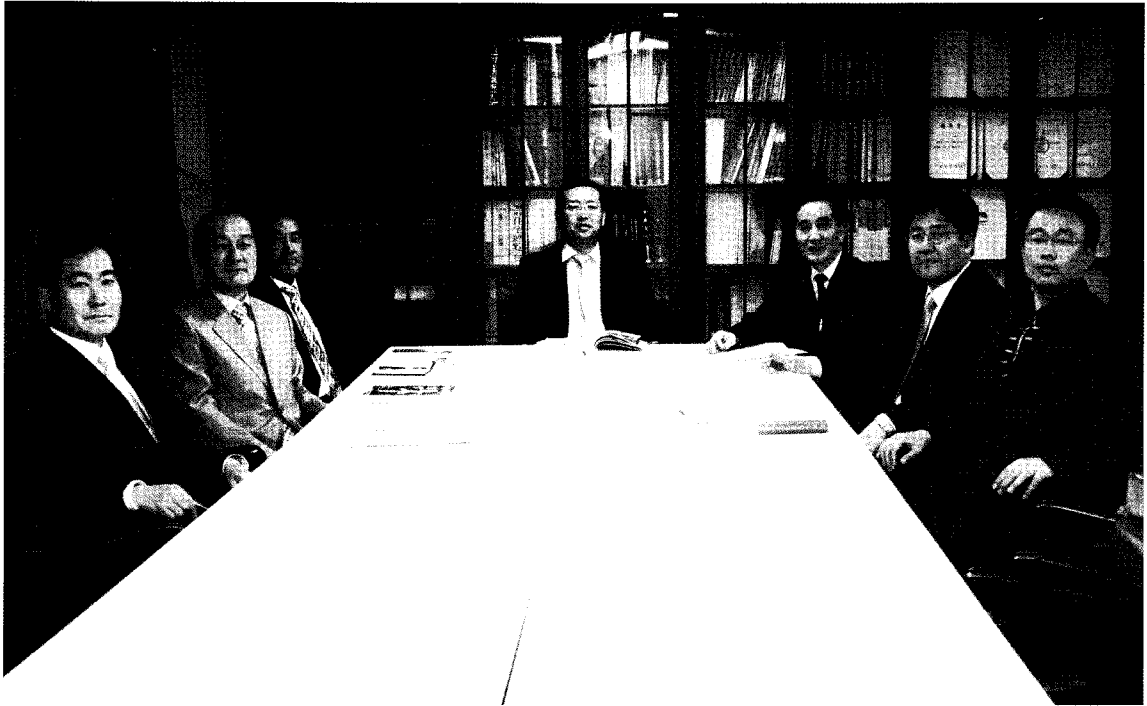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지난 3월25일 오전 11시 건축사회관 1층 대연회장에서 제24대 회장과 임기 만료

된 회장의 이·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지난 3월16일 제34회 정기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된 김영수 신임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그간 사랑과 믿음으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신 회원들에 감사를 표하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현실을 타계하기위해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향후 저비용 고효율의 업무혁신을 통해 건강한 서울시 건축사회 만들기 노력하자고 당부하고 이를 위해 회원 각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건축사가 주인인 협회, 회원이 참여하는 협회,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협회로 차근차근 변모시켜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김영수 신임 서울시 건축사회 회장은 우리협회 회원으로 (주)민영 종합건축사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

제87회 건설안전기술사 합격자 일행 협회 방문



• 지난 4월 30일 협회를 방문해 한경보 회장·박구준 부회장과 간담회를 가진 제87회 건설안전기술사 합격자 일행

신한종합건설(주) 이원규 부사장을 비롯한 제87회 건설안전기술사 합격자 일행은 지난 4월30일 협회를 방문해 한경보 회장·박구준 부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협회를 방문한 합격자 일행은 창립 20주년을 맞는 지금까지의 협회 발전을 소개받고 향후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최종합격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합격자 중 구로구 이선기 치수와

장은 소감을 통해 건설분야 안전에 대한 의식이 날로 강화되고 있어 안전분야 전문가적 지식을 습득하고자 노력했던 것이 합격 영광의 비결이었다고 설명하고 향후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회를 찾은 합격자들은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유대강화와 정보교환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임직원 일동은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합격의 영예를 안은 여러분의 합격을 축하하며 협회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이날 협회를 방문한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종합건설(주) 이원규 부사장

구로구 이선기 치수과장

삼성건설 조용관 소장, GS건설 김영석 부장

남양건설 박찬우 소장 이상 5명



• 제87회 건설안전기술사 합격자 일행과 한경보 회장

최용화 위원(경인지회 본부장), 경기도 주택품질 향상 특강



경기도 감리·시공자 주택품질향상 교육 특강을 실시하고 있는 최용화 위원.



교육실시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윤석명 과장.

우리협회 최용화 기술위원(경인지회 본부장)은 지난 3월3일 수원시 소재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주택품질향상을 위한 감리·시공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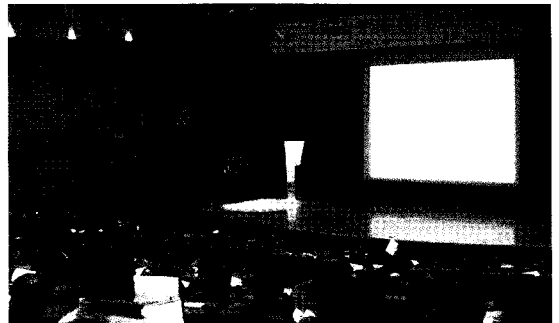
경기도내 감리·시공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에서 최용화 전문위원은 '기술자는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품질검수단'의 활동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그간 경기도 아파트품질검수단의 일원으로 참가해 지적하고 개선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향후 중점 추진방향과 개선해야할 사항 등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경기도 주택정책과에서 주관한 행사로 경기도 주택정책과 윤석명 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파트품질검수단의 활동으로 선진 경기를 이루어가는 경기도의 비전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특히, '아파트품질검수단'의 활동결과 매뉴얼을 제작해 관련기관에 배포한 내용과 서울시를 비롯해 광주광역시 등에서도 벤치마킹을 시도하고 있는 등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날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여 진행된 강의에 참석한 삼부토건 이건영 과장은 교육소감을 통해 경기도 아파트품질향상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시공 담당자로서 더욱 큰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향후 이러한 교육의 정례화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부토건 2009년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 직무교육 실시



삼부토건 2009년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 직무교육에 참석한 김명조 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삼부토건주식회사는 2009년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 직무교육을 우리협회 주관으로 지난 3월5일부터 7일까지 2박3일간 역사의 고장 경주 최고의 호텔 콩코드호텔과 신라밀레니엄파크 일원에서 실시하였다.

강의 및 토의가 실시된 경주 콩코드 호텔에서 있었던 직무교육은 첫째 날 입소식에 이어 산업안전보건공단 오병한 차장의 강의로 Kosha 18001 시스템구축 및 실천방안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2박3일간 이어졌다.

첫날 교육을 마친 후 이번 직무교육에 참가한 삼부토건(주)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들은 결의문 채택을 통해 '무재해 운동을 전 사업장에 활성화시키기 위해 불안정한 행동을 지적 확인과 위험예지활동을 생활화 할 것과 불안정한 상태 및 잠재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제거하여 산업재해 감소의 기수가 될 것 등을 결의하고 안전 최우선 무재해 삼부토건(주)을 숭선수범해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둘째 날 이어진 교육에서 우리협회 하재근 전문위원은 최근 현장 안전점검 사례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관

리해야 할 point를 강의 하였다.

오전 교육 후 이어진 신라밀레니엄파크 관람과 메인공연장에서는 공연과 관람이 이어졌는데, 신라밀레니엄파크의 자랑인 메인공연장은 지상무대 300평, 수상무대 600여평의 방대한 스케일로 1,500명 이상이 동시에 관람이 가능한 대공연장으로 대규모 기계장치와 특수효과, 스텐트 등이 결합된 초대형 스펙터클 공연을 통해 신라천년의 역사와 영광 그리고 찬란했던 문화와 호국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공연이 연출되었다.

SMP 관람후 이어진 오후 교육에서는 삼부토건(주) 안전관리팀 최용호 팀장의 2008년 실적 및 2009년 중점추진계획 및 대책 특강과 신항철 노무사의 재해관리시 대처방안, 박경태 Kosha 전문위원의 위험성평가 실습 및 토의와 위험성평가 실습·분임토의 등의 일정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퇴소에 앞서 이철선 강사에 의한 직장인의 건강관리와 스트레스 강의를 마지막으로 2009년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 직무교육 대장을 마무리 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현 회장, 저소득층 자녀와 일대일 결연 캠페인 추진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현 회장

해상 및 건설 분야에 있어 정평이 나 있는 김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소속 변호사)가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동아일보, 서울시교육청과 공동으로 '2009 함께 하는 희망 찾기-

변호사님과 친구됐어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저소득층 자녀와 일대일 결연을 맺어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후원금은 수업료, 급식비, 인터넷 이용 요금 등 지원 대상 학생의 사정에 맞게 사용되며, 참가 변호사와 학생에게는 결연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제공돼 필요에 따라 일대일 멘터링 등 정신적 후원도 이루어진다.

한편, 김현 회장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지원 학생들에게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하거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업무 제휴를 맺고 있는 한강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대림미술관 등을 통해 문화 체험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을 다각도로 후원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캠페인은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환영받아 지난달 말 캠페인이 시작된 지 보름여 만인 8일까지 210명의 변호사가 참여를 신청한 데 이어 일주일 사이에 150명의 변호사가 추가로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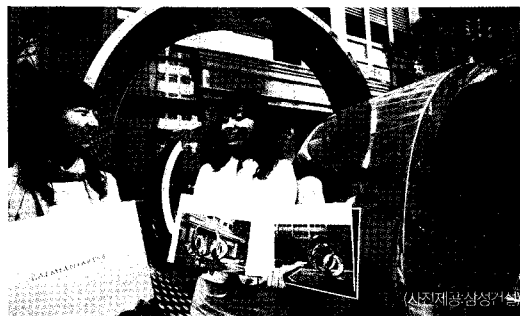
법무법인 세창 소속 변호사인 김 현 변호사는 지난 2009. 2. 2. 실시되었던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변호사의 전문성 및 국제적 역량 강화를 주된 공약으로 삼아 당선된 김 현 회장은 지금까지 '여러 단체 등에서 보여왔던 리더십을 바탕으로 앞으로 2년간 서울지방 변호사회의 수장으로서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삼성건설 래미안 단지에 설치된 미술작품집 발간

삼성물산(대표이사 부회장 이상대) 건설부문은 전문 예술기관의 컨설팅을 거친 수준 높은 미술작품을 단지에 배치하고, 예술적 디자인이 접목된 공공시설물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래미안아파트를 예술 문화의 명소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이를 위해 향후 2년간 100억원을 투자해 조각과 설치, 회화 등 단지내 설치되는 공공미술작품 업그레이드를 포함한 예술문화 활동과 예술성을 접목한 단지 디자인개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인데, 우선 공공미술작품에 대한 예술성을 높이고 작가 및 작품선정과정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삼성미술관 리움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함께 삼성물산은 2년여 한 번씩 준공아파트에 설치된 예술작품의 작품집 발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인데 작품집 발간으로 래미안아

파트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대외적인 인증을 받는 동시에 일반인이 쉽게 문화예술작품을 즐길 수 있는 작품지도의 기능까지 도록 한다는 포석이다. 실제 지난 06년 업계 최초로 미술품 도록집을 낸 데 이어 올해에도 06년부터 08년까지 준공한 아파트내에 설치된 총 43명의 작가, 53개의 작품에 대한 정보와 사진을 담은 작품집을 발간했다.

두산건설 여직원회 홀트아동복지회에 후원금 전달

모두가 어려운 경제 상황
임에도 독특한 아이디어로
불우이웃 돕기에 나선 사람
들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두산건설 여직원회는 지난
1월 14일 홀트아동복지회에
후원금을 전달하였는데, 후
원금은 지난해 말 도곡동에
위치한 두산 Art Square에서

‘2008 이웃사랑 나누기 디스
플레이용품 판매행사’ 수익금 전액이다.

건설회사가 아파트 분양시 모델하우스 용으로 전문 디자인
너의 디스플레이 되었던 고급 장식을 분양이 끝나면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였는데 물품처
리를 하던중 예지회에서 회
사측과 협의해 전시되었던
가구 및 침구류 등과 협력업
체의 협찬품을 직원에게 실
비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한
게 된 것이다. 작은 아이디어
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례가 된 것이다.

행사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우리의 노력으로 불우한 이웃
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해 질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으며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2009 기술개발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현대건설(사장 김중
겸)은 지난 4월 16일 본
사 16층 아산홀에서 김
중겸 사장과 각 부서 임
직원, 수상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9 현대건설 기술개
발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2009년 4월 16일 서울 동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사옥에서 개최한 2009 기술개발경진대회 시상식에서
현대건설 김중겸 사장(사진 가운데)과 수상자들이 함께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건설)

지난 1월 2일 행사 개최 공고와 함께 시작된 이번 기술개발
경진대회에서는 전문건설업체와 자재업체 등에서 111개의 우
수 기술을 제출해 성황을 이루었는데 이번 기술개발 경진대
회의 주제는 ‘원가절감이 가능한 신자재/신공법’ ‘현장 프로
세스 개선방안’ 등이었다. 김중겸 사장은 시상식에서 “현대건
설 기술개발 경진대회가 여러 우수업체들 간의 정보공유의
장이자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으며, 모든 참가업체들이 경진대회를 통해 남보다 한 발 앞서

미래기술 개발의 방향
을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상 수상자인 (주)연
우피씨엔지니어링의
‘MTS(Multi-tee-slab)
를 이용한 지하주차장
RC복합화 공법’은 ‘즉
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공기단축 및 시공성 향상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상대
적 물량 감소로 기존 복합화공법에 비해 10% 원가절감이 가
능하며, 하중저항 능력도 15% 이상 개선된 안전성이 뛰어난
기술로 평가받았으며, 역시 금상 수상자인 T.C.M 지하 연
속벽 공법은 ‘지중에 커터기를 삽입해 연속벽체를 만드는 공
법으로, 기존 공법보다 차수(물막음)가 뛰어난 뿐만 아니라 시
공속도도 1.5배 단축되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시키는 등 친
환경 공법으로 평가되었다.

LIG건영, LIG건설로 사명 변경하고 강희용 사장 영입



LIG건설 강희용 사장

LIG 건설

LIG건영이 회사명을 바꾸고 새롭게 도약한다.

LIG건영은 지난주 4월 17일 임시이사회를 개최

하여 LIG건설로 사명을 변경하고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강희용씨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LIG그룹이 건영을 인수하면서 새롭게 출범했던 LIG건영은, 이번 사명변경을 통해 LIG그룹 계열사로서의 정체성과 종합건설업체로서의 방향성을 확고히 구축하고 그룹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입지를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명변경과 함께 현대건설 부사장, 제2영동고속도로(주) 사장을 역임한 강희용(姜熙容, 62세)씨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영입하고, 현 노태욱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 발령하였다.

신임 강희용 사장은 서울대 토목공학과 출신으로 1976년

현대건설에 입사, 토목사업본부장 전무이사, 제2영동 고속도로 사업단장 부사장을 거쳐, 최근에는 제2영동고속도로(주)의 사장을 역임했다.

건설업계의 전문경영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강희용 사장의 영입은,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는 토목분야를 강화하여 해외건설과 함께 환경, 신재생 에너지 등 신사업 분야에 대한 진출을 통해 종합건설업체로서의 위상을 갖추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지난 2006년 LIG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된 LIG건영은 이듬해 새로운 아파트 브랜드인 LIGA를 선보이며 주택 사업을 확대하고, 공공분야 및 그룹공사의 수주 확대, UAE, 베트남, 필리핀 등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등 공격적 행보로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건설 분야의 이미지가 강한 LIG건영이라는 사명을 사용해 왔지만, 약 2년 동안 신규사업 진출 등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인지도를 쌓은 만큼 사명변경을 결정하게 됐다”며 “LIG건설로의 사명변경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종합건설업체로서의 방향성을 확고히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 김정중 사장 한국주택협회 회장에 취임



(사진제공 한국주택협회)

현대산업개발 김정중 사장이 지난 3월25일 르네상스 서울호텔 다이아몬드볼룸에서 김종겸 현대건설 사장을 비롯한 회원사 대표, 협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적인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김정중 회장은 취임사에서 “어려운 시기에 회장직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지혜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또한, 김정중 회장은 “그동안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히고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주택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강남투기지역 해제 등 남아있는 잔존 규제 개선에 노력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기업개선작업과 유동성 지원이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중 회장은 향후 “협회 본연의 회원사 권익증진을 위해 업계와 정부의 가교역할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공동노력 등 지원시스템과 협조체제를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